

# 13차시. 순환되는 가치고리를 구성하다.

## 01. 가치사슬의 해체와 재편

### ▶ 가치사슬:

가치의 주체들이 서로 가치를 주고받으며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, 체인 형태와 닮아 붙여진 이름

- ▶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은 가치사슬의 형태와 구조로 진화해왔고, 이것이 단계별 이동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시대의 전형적인 가치부가(value added) 방식의 모습임
- ▶ 199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켰고 경계를 허무는 융합을 일으키면서 산업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괴력을 발휘함

## 02. 산업계 전체로 퍼지는 가치사슬이 붕괴

- ▶ 기존 견고한 가치사슬을 붕괴시킨 진원지는 인터넷이다. 인터넷이 일으킨 변화는 크게 두 가지, 연결과 융합임
- ▶ 시아가 기존 가치사슬 안에 고정되어 있다가는 기존 가치사슬 안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, 기존의 틀 안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야 함
- ▶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플랫폼은 가치 고리(Value Loop)의 구조

## 03. 에어비앤비가 만드는 가치고리의 사례

### ▶ 오아시스 컬렉션스:

개인 간 숙소공유는 아니지만 단기 대여 아파트를 숙소로 활용하면서 부티크 호텔의 요소를 적용한 사례

### ▶ 손더(Sonder):

스스로를 홈텔(home + hotel)이라 부르는데, 단기대여 숙소에서 호텔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

## 04. 가치사슬 해체에 대응하는 전략

- ▶ 4차 산업혁명의 시대,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전환을 이해하고 기존의 사업모델을 혁신해야 하는데 대응 전략은 크게 투자를 하든가, 제휴를 맺든가, 스스로 확장하는 것임